

“키가 너무 작아요..어떻게 하죠?”

Q)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키가 너무 작아 국민학교 5학년 때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 아직도 140cm밖에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키가 크지 않고 식욕도 오르지 않는데 어쩌면 좋지요?

-서울 마포구에서 지원 드림

A)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지원이의 편지 잘 받아보았어요. 지원이의 고민을 듣고 선생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원이의 마음을 잘 알겠어요. 남들에 비해 키가 유난히 작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게다가 성장호르몬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자라지 않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겠지요. 오죽했으면 입맛까지 잃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가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아직도 키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또 사춘기 때는 의학용어로 growth spurt, 우리말로 '성장의 급증'이라고 해서 여자의 경우 1년에 평균 9cm 정도의 키가 자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실망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물론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키가 작은 경우는 이 시기를 지나도 많이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니, 지금 시기가 지원이의 성장급증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여 이 시기를 최대 성장시기로 만들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지원이가 키가 자라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지원이의 기도를 꼭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요. 지원이는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임금이 다윗 왕이라는 것을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알고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눈을 피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의 용모를 보는 순간 왕이 될 재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일곱 형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오직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시다.

그래요! 지원이가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이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원이가 키가 작아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10) 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지원이의 중심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이렇게 지원이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 버리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열심히 먹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원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주실 거예요.

글/김동수(연대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의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